

나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전담반 본격 가동

11만 7215명 대상 21일~9월 12일 지급...11월까지 사용해야
1·2차 집행, 일반 시민 28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3만원

나주시가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8일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전담조직 1차 운영 회의를 열고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강상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사업 총괄팀, 읍면동 관리팀, 언론대응팀, 재정지원팀까지 4개 팀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꾸리고 곧바로 추진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된 시민 11만 7215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급하고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총사업비는 350억 4100만원 규모(국비 90%, 도

비 5%, 시비 5%)로 1차 233억 2000만원, 2차 117억 2100만원을 편성했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53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1차와 2차 집행을 합쳐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은 1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을 더 지급하면서 일반 시민은 28만원, 차상위와 한부모가족은 43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3만원까지 각각 지원받는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농협, 광주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소비쿠폰 사용은 11월 30일까지 관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

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지급기간과 동일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접수 받는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고 주말(토, 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소비쿠폰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21일부터 지급과 소비가 동시에 차질없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가용인력을 최대한 많이 투입해야 한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2차 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는 지난 8일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전담조직 1차 운영 회의를 열고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 체육시설 이용, 더 깨끗하고 편리해졌다

10억원 투입 환경개선사업 완료
도로 재포장·사위실 증설 등 5건

나주시가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총 10억여원을 투입해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체육복지 기반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스퀘시 전용경기장 사위실 증축, 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재포장, 영산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 남산테니스장 조명 개선, 다목적체육관 화장실 증설 등 5건의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 이용자 중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총 사업비 10억여 원이 투입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퀘시경기장 내 협소했던 사위실을 106㎡(약 32평) 규모로 증축하고 종합운동장 주변 노후 도로를 재포장해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확보했다.

영산테니스장에는 하드코트를 설치해 경기 품질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였으며 남산테니스장에는 고효율 LED 조명을 설치해 야간 이용환경을 개선했다.



나주시가 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완료했다.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전경. <나주시 제공>

다목적체육관에는 화장실 리모델링과 증설을 진행했고 특히 여성 화장실 좌변기를 4개에서 13개로 확대해 반복 제기됐던 대기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되던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구분 독립형으로 1개소 추가 설치를 통해 사생활

보호와 편의성을 높였다. 공사 완료 이후 체육관을 찾는 한 시민은 "화장실 대기가 줄어들고 환경이 훨씬 쾌적해졌다"며 "실제 대회와 단체 행사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국정과제 연계 전략사업 발굴

미래 비전사업 보고회...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등 64건 선정

장흥군이 최근 '새정부 국정방안을 위한 미래 비전사업 보고회'를 열고 중장기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에 본격 나섰다.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열린 보고회는 김성 장흥군수 주재로 열렸으며 장흥군의 지역 맞춤형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와 연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군은 이번 회의에서 총 64건, 약 1조3704억 원 규모의 전략사업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1조387억원은 국비 건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 연계사업 48건과 지역 현안 및 대통령 장흥 공약사업 16건이 포함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그린바이오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수산 양식산업 AI 파이프라인 구축 등 바이오·AI 기반 산업 육성안 ▲국립 유기농업진흥센터 건립 ▲무병묘 공급지원센터 조성 ▲가축분뇨 고체 배

이오연료 설비 구축 등 1차 산업 고도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국립 노벨문학관 건립 ▲문학관광 기행특구 조성 ▲보림사 일원 생태정원 조성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군은 군민의 70% 이상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촌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 활용 방안과 문화예술·관광 접목 전략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사업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고 확보에 나서고 '저소득 노인 무료식사 배달' 등 복지 분야 사업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국비 지원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이남오 함평군의장-문화예술인과 만남



이남오(왼쪽 두번째) 함평군의의회 의장이 지난 7일 함평군의의회를 찾은 탤런트 이지훈(왼쪽 첫번째), 아나운서 황인성(맨 오른쪽), 한국엔터테인먼트협회 이일섭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콘텐츠 개발·경제 활성화 논의

이남오 함평군의의회 의장이 탤런트 이지훈 등 문화예술인과 만나 문화콘텐츠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머리를 맞댔다.

함평군의의회는 이 의장이 지난 7일, 함평군의의회를 방문한 탤런트 이지훈과 아나운서 황인성, 한국엔터테인먼트협회 이일섭 회장과 자리를 갖고 함평군의 문화콘텐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의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서는 함평군이 가진 다양한 지역특제와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문화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방안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실질적인 전략 마련 방법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 잔류농약 분석 역량 국내외서 공인

농촌진흥청·영국식품환경연구청 높은 등급 평가

화순군이 농촌진흥청과 영국식품환경연구청(FERA)으로부터 잔류농약 분석 역량을 공식 인정받았다.

화순군은 농촌진흥청의 잔류농약 분석 숙련도 시험 결과 '만족' 평가를 받았으며, 식품·농업 분야 시험기관의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적인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인 영국식품환경연구청(FERA) 주관 FAPAS 평가 역시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로 소비자

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운영하여 잔류농약 463개 항목의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잔류농약 분석은 화순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지역농업인이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분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방문하여 농산물 시료(0.5~1kg)와 분석의뢰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땀별 경로당 지붕에 ‘차열 페인트’ 시공

28곳에 예산 1억원 투입
냉방비 절감·생활환경 개선

담양군이 기후위기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차열 페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담양군은 여름철 극심한 폭염에 대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28곳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열 페인트(Cool Roof) 시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쿨루프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및 열 반사 효과가 있는 특수 페인트를 건물 지붕에 도포해 옥상 온도를 낮추고 내부 온도 상승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고온 현상이 심해지는 여름철, 냉방비 절감과 실내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노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추진돼, 에너지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불볕더



담양군 관계자가 주택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무더위뿐만 아니라 한파 등 혹독한 기후에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 발굴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담양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함평군, 국가공인 떡제조기능사 양성

자격증 취득반 교육 성료...필기시험 합격률 70%

함평군이 군민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국가공인 떡제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이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됐다.

함평군은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국가공인 떡제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이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받은 수강생 20명 중 14명이 필기 시험에 합격했다.

교육은 국가 공인 떡제조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플라워푸드교육장에서 진행됐다.

군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했으며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자작시험 실기 품목인 12종 떡을 중심으로 실습하고, 2회의 실기 모의고사를 통해 수강생의 실전 감각을 높였다.

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군민이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남은 실기 시험까지 모두 합격해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